일본 근대 시대 정치

21251141 원예학과 김윤경

에도 시대는 1603년부터 1867년까지 264년간 계속되었고 쇼오궁은 15대까지였다. 하나의 정권이 이토록 길게 이어진 것은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전국 시대에는 전쟁의 승리로 땅을 많이 확보했다. 이른바 버블에 의한 고성장이었다. 천하통일을 한 다음에 토요토미(豊臣)도 이 버블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조선을 침략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에도 시대 정치의 큰 특징은 전국(戦国)시대에 비하여 저성장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에도 시대는 다이묘오(大名, 에도 시대 쌀 1만석 이상의 땅을 지배하고 있던 영주)들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했다. 풍요로운 경제력과 전국의 다이묘오를 교묘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체제가 바로 막번 체제[바쿠한 타이세에(幕潘体制)]였다. 세키가하라(関が原) 전투의 승리로 에도 막부는 토요토미가(豊臣家)와 그의 가신의 땅을 몰수하여 자기편의 다이묘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고도 남았고 전국 토지의 1/4이 에도막부의 직할령이었다. 이어 막부는 전국의 다이묘오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한다. 일국일성 명령[익코쿠 이치죠오 레이(一国一城令)]을 내려 각 다이묘오에게 본성 이외의 성을 모조리 헐어버릴 것을 명했다.

그리고 다이묘오끼리 동맹을 맺거나 허가 없이 성을 수리해도 안되었으며 사적인 군사력은 모조리 몰수했다. 이것이 무가 제법도[부케쇼핫토(武家諸法度)]였다. 그는 또한 참근 교대[상킹코오타이(参勤交代)]제도를 도입하여 다이묘오에게 격년제로 에도에 거주케 했으며 격년에 한 번씩 반드시 에도(江戶)와 영지를 왕복하게 했으며 그 인원수까지 영지의 크기에 의해 할당하였다.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 다이묘오의 경제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이묘오의 처자는 에도에 살도록 했다. 당연히 인질로 잡아두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막부는 조정과 귀족들에게는 궁중 및 귀족 제법도[킨츄우 나라비니 쿠게쇼핫토(禁中並公家諸法度)]를, 절이나 진쟈에는 사원법도[지잉핫토(寺院法度)]를 만들어 귀족과 절과 진쟈를 엄하게 통제하였다.

에도시대의 다이묘는 1) 봉지를 1만석 이상을 가지며 2) 쇼군으로부터 직접 영지를 하사받아야 한다. 어떤 대규모 다이묘의 가신은 봉지가 1만석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쇼군에게 직접 하사받은게 아니라 다이묘가 재분배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이묘라고 하지 않는다. [쇼군](http://namu.mirror.wiki/w/%EC%87%BC%EA%B5%B0)에게 직접 봉지를 받았지만, 영지가 만석 미만인 자들은 하타모토(旗本)라고 한다. 이들은 쇼군의 직속가신이며, 쇼군을 직접 알현할 자격이 있었다. [에도 막부](http://namu.mirror.wiki/w/%EC%97%90%EB%8F%84%20%EB%A7%89%EB%B6%80)의 다이묘는 세가지 구분이 있었는데, 미토, 마츠다이라 등 도쿠가와 직계에 속하며 군사적 요충지를 영지로 장악한 신판(親藩) 다이묘가 있었고, [세키가하라](http://namu.mirror.wiki/w/%EC%84%B8%ED%82%A4%EA%B0%80%ED%95%98%EB%9D%BC%20%EC%A0%84%ED%88%AC) 이전부터 도쿠가와에 속했거나, 신판도 도자마도 아닌 다이묘였던 후다이(譜代) 다이묘가 있었다. 그리고 모리, 시마즈 등 도쿠가와에게 저항하던 적군 출신의 다이묘들은 도자마(外樣)라고 불리며 에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을 근거로 하였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과거의 적들은 그 원한을 잊지 않았는지, 후일 에도 막부 타도의 주동자가 된다.

영지의 삭감이나 개간으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지지만, 에도 막부의 쇼군의 경우 대략 300~400만석에 이르는 영지를 직할로 다스렸다. 게다가 수족과 같이 부릴 수 있는 하타모토들에게 나눠준 영지가 300만석 정도였으니, 실질적으로는 600만석 이상의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 반면 가장 넓은 영지를 보유했던 몇 몇 다이묘들의 영지는 100만석 정도였으니 일개 다이묘로써 쇼군에게 반항하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던 것이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영지를 몰수당하는 게 일상다반사였는데 그나마 막부가 정착하면서부터는 죽이거나 평민으로 강등하지는 않고 영지 몰수 뒤 그대로 무사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며, 운이 좋으면 조정으로 불러 하타모토로 삼았다. 또, 에도막부는 일종의 [인질](http://namu.mirror.wiki/w/%EC%9D%B8%EC%A7%88)제도인 산킨코타이([참근교대](http://namu.mirror.wiki/w/%EC%B0%B8%EA%B7%BC%EA%B5%90%EB%8C%80))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수도에 다이묘의 가족을 모아놓아 반란을 통제했고, 다이묘가 돈을 소모하며 영지와 수도를 오가게 하며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인질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신분 간의 거래에 가까웠기 때문에 인질의 취급이나 대우가 상당히 정중했고, 일정 구역 안에서는 불편함 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독교 금지령 에도시대에는 나가사키 데지마에서의 중국, 네덜란드와의 교류와 쓰시마 번을 통한 조선과의 교류 이외에는 외국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쇄국정책을 폈다.(하지만 실제로는 류큐를 통한 대명, 청 교역이나 북방교역이 존재했다.) 바테렌(기독교 선교사)추방령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령하였지만, 쇄국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시마바라의 난으로, 기독교와 잇키의 협력으로 인해 농민들의 난을 제압하기가 힘들었고, 이로 인해 기독교의 정치적 위험성이 강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쇄국정책 또한 이 시기에 네덜란드가 일본 교역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등 로마 가톨릭 세력에게는 일본 식민지화의 의도가 있어 위험하다고 막부에 조언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정책을 해금(海禁)정책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경우에는 주로 연안지역의 왜구를 포함한 해적 방어와 해상에서의 밀무역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일본의 쇄국과는 사정이 다른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쇄국도 중국의 해금과 같이 쇄국보다는 해금이라고 하는 쪽이 적당하다는 설명도 있다. 쇄국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일본인의 해외진출은 활발 했고, 동남아시아에 많은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또한 태국에 건너간 야마다 나가마사처럼 그 나라에서 중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쇄국과 시마바라의 기독교도 반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지만, 무역은 보호 · 장려했기 때문에 그 포교를 묵인해 왔다. 그 결과 1549년부터 1644년까지 일본인 75만 명이 개종하였다. 신 앞에 만인의 평등, 독립된 인격, 인권의식, 자아의식과 같은 주장은 일본에서는 아주 새로운 신념이었고, 이 같은 주장이 일본의 기독교인에게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종자들은 일신교라는 신개념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새로운 인간관을 희미하게나마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신 앞에서 평등을 설파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일본의 봉건적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의 일신교적인 성격은 기성종교와 대립하였고 일부다처제의 금지, 할복의 금지 등은 봉건도덕과 모순되었다. 기독교 신도가 증가하면서 보인 단결력은 막부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또 새롭게 내항한 신교국 영국인, 네덜란드인은 구교 가톨릭국인 스페인, 포르투갈이 포교한 후 일본을 정복한 의도가 있다고 밀고했다. 게다가 막부는 개종한 규슈의 다이묘들이 무역의 이익으로 경제적 · 군사적으로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측근에도 기독교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자신의 직할령에 기독교를 금지시켰다. 이듬해에는 전국적으로 교회당의 파괴, 선교사의 추방, 신도에의 개종을 강요하고 개종하지 않은 신도는 해외로 추방하였다.
막부는 1616년 유럽인의 거주 · 무역의 기항지를 히라도(平戶), 나가사키(長崎)의 두 항으로 제한하였다. 이어서 1624년에는 선교사의 활동에 가장 깊이 관련하고 있던 스페인 선박의 내항을 금지하고, 1633년에는 막부의 허락을 받은 선박 이외의 일본선의 해외도항을 금지시켰다. 게다가 1635년에는 일본인의 해외도항과 재외 일본인의 귀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또 이제까지 제한하지 않았던 중국선의 내항도 나가사키의 한 곳으로 제한하고 이듬해에는 포르투갈인을 나가사키항내에 축조한 인공섬인 데지마(出島)로 이주시켰다.이러한 막부의 쇄국정책 과정에서 1637년 규슈의 시마바라(島原) · 아마쿠사(天草) 지방에서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반란(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다. 시마바라, 아마쿠사 두 지방의 영주가 기독교도를 심하게 탄압하고 중세를 부과하는 등 압정을 행했고 견딜 수 없게 된 시마바라의 민중이 무장봉기했다. 뒤이어 아마쿠사 인민도 일어났다. 민중이 아마쿠사와 시마바라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막부에서 토벌을 위한 대군을 파견하자 두 지역의 3만 7천여 명이 시마바라의 남단에서 바다를 등지고 있는 폐성인 하라성에 진을 치고 저항하였다. 성안의 높은 곳에는 나무십자가가 세워지고 성벽에는 십자가나 성상을 그린 깃발이 내걸렸다. 봉기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불교도도 많이 있었다. 1639년 2월 28일 반란 지도자 모두가 전사하고 성은 함락되었다. 이 난에 의해 막부의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강해져 1639년에는 포르투갈선의 내항을 전면 금지하였고, 대일무역의 주력이었던 포르투갈이 일본을 떠나게 되었다. 1641년에는 유럽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네덜란드 인을 히라도 상관에서 나가사키와 데지마(出島)로 옮기고 일본인과의 교류를 금지하였으며 나가사키 봉행(長崎奉行)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쇄국은 완성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기독교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마리아, 예수 등이 새겨져 있거나 그려져 있는 성화상을 짓밟아보게 하는 후미에(繪踏)를 실시하고, 기독교 관련 서적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후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선과 중국선만이 내항하게 되고, 해외의 사정은 네덜란드의 선박이 입항할 즈음에 네덜란드 상관장(商館長)이 막부에 제출하는 풍설서와 중국선이 가져다주는 정보에 의해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나가사키 외에 쓰시마번을 통한 조선무역, 사쓰마번을 통한 류큐무역, 홋카이도의 마쓰마에번을 통해 아이누와 무역이 존재하게 되었다. 나가사키를 포함한 이들 4개 지역이 근세 일본의 대외 관계에서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쇄국정책에 의해 국내의 상품유통은 제한받고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경제가 유지되어 막번체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국내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고 산업이 발달하여 국민문화의 형성도 보였다. 그러나 쇄국으로 인해 일본은 세계의 정세로부터 고립하고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쇼군이나 천황을 초월하는 높은 가치, 인간평등 관념은 봉건체제와 쇄국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히라도 섬 북서쪽에 위치한 이키쓰키 섬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쌩 쥬앙의 노래'가 도쿠가와 시대 250년 동안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가나가와 조약

혹은 **미일화친조약**(日米和親条約))은 [1854년](https://ko.wikipedia.org/wiki/1854%EB%85%84) [3월 31일](https://ko.wikipedia.org/wiki/3%EC%9B%94_31%EC%9D%BC)에 체결된 [미국](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과 [일본](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의 조약으로서 미 해군의 [매튜 C. 페리](https://ko.wikipedia.org/wiki/%EB%A7%A4%ED%8A%9C_C._%ED%8E%98%EB%A6%AC)와 일본의 [메이지 천황](https://ko.wikipedia.org/wiki/%EB%A9%94%EC%9D%B4%EC%A7%80_%EC%B2%9C%ED%99%A9)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약은 몇몇 구역을 개항하는 것을 포함하였는데 지금의 [시모다 시](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A%A8%EB%8B%A4_%EC%8B%9C)와 [하코다테](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C%BD%94%EB%8B%A4%ED%85%8C)는 이때 개항하게 되었다. 미국과의 무역을 목적으로 개항한 이들 항구는 미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페리의 함대에 굴복한 일본이 맺은 조약이었기에 [불평등 조약](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D%8F%89%EB%93%B1_%EC%A1%B0%EC%95%BD)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년간 유지되던 일본의 쇄국이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사실 페리는 일본의 행정관들이 아닌 국가 수장과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을 굳건히 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 [쇼군](https://ko.wikipedia.org/wiki/%EC%87%BC%EA%B5%B0) [도쿠가와 이에요시](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C%BF%A0%EA%B0%80%EC%99%80_%EC%9D%B4%EC%97%90%EC%9A%94%EC%8B%9C)가 실권자였으므로 그는 쇼군을 비롯한 대표자들과 협상을 맺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가나가와 조약으로 인해 [1860년](https://ko.wikipedia.org/wiki/1860%EB%85%84) 막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황제에 실권이 다시 집중됨에 따라 [1868년](https://ko.wikipedia.org/wiki/1868%EB%85%84) 신정부의 [왕정복고](https://ko.wikipedia.org/wiki/%EC%99%95%EC%A0%95%EB%B3%B5%EA%B3%A0)에 변화당하였던 막부 멸망에 의해 완전히 사그라든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도요토미 정권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게다가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秀賴)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히데요리를 대신하여 정무를 장악한 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다. 이에야스는 미카와(三河)의 호족이었는데, 오다 노부나가와 동맹해서 도카이(東海) 지방에 세력을 뻗쳤다. 1590년에는 히데요시를 도와 오다와(小田原)의 호조 씨(北條氏)를 멸망시킨 후 간토(관동)의 6개국을 하사받았다. 이에야스는 도카이에서 간토로 이주하여 약 250만 석의 다이묘로서 에도에 본거지를 두고 이윽고 도요토미 정권의 5다이로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특히 이에야스는 조선출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력은 온존하였으며 히데요시 이후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야스의 대두에 대항하여 5봉행(奉行)의 한사람인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이에야스의 지배권 확대에 불만을 품고,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와 더불어 이에야스를 타도하려고 하였다(서군). 이에 대해 이에야스는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와 동맹하였다(동군). 1600년 양자는 미노(美濃)의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에서 격돌하였으나, 이에야스 측이 승리하여 패권을 장악하였다.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후, 서군에 가담한 다이묘들의 영지 440만 석을 몰수하고, 모리 테루모토를 120만 석에서 30만 석으로 감봉했다. 이렇게 하여 얻은 토지를 동군의 다이묘들에게 증봉하거나 자신의 가신들에게 주어 후다이 다이묘(普代大名, 세키가하라 전투 전부터 충성한 다이묘) 28명을 새로 세웠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도카이도와 나카센도 등 전국의 주요 도로를 정비 · 장악하고 교토, 후시미, 사카이, 나가사키 등 주요 도시와 항구를 직할지로 삼았다. 그와 동시에 오모리, 이쿠노, 도사, 이즈 등의 주요 금은광을 장악, 화폐 주조권을 장악하여 전국적인 경제기반을 확보했다. 이에야스는 1603년 정이대장군에 임명되고 에도에 막부를 개창하였다. 이후 260여 년간에 걸친 에도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어서 1614~15년에는 도요토미 씨(豊臣氏) 세력의 보루인 오사카성을 공격하여 도요토미를 멸망시키고, 도쿠가와 씨에 의한 전국지배를 확립하였다. 오사카 전투 직후 1616년 이에야스는 다이묘가 거주하는 본성을 제외한 모든 성을 파괴하라는 일국일성령(一國一城令)을 내렸다. 이 명령은 막부에 대항할 수 있는 다이묘들의 군사적 거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각지의 성을 거점으로 다이묘에게 저항하려는 무사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어 다이묘의 권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1603년 수도가 본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에야스는 에도(江戶) 시가를 크게 확장하여 300개의 도시(町, 마치)를 새로 만들고, 1606~1607년에는 5층의 천수각(天守閣)을 가진 장대한 에도성을 쌓았다. 이 대토목공사에는 전국의 다이묘들이 동원되었다. 모든 방면에서 막부의 기초를 굳힌 이에야스는 도요토미가(豊臣家)를 멸하고 다이묘, 천황, 사원 통제의 큰 윤곽을 잡은 다음 해(1616) 병으로 죽었다. 그의 유지에 따라 천황은 죽은 이에야스에게 '도쇼다이곤겐(東照大權現)'이라는 신호(神號)를 내렸다. 사람이 죽은 뒤에 곧바로 이를 신으로 여기는 일은 히데요시가 처음이었으나, 이에야스는 도요토미가를 멸하고 즉시 조정으로 하여금 그의 신호를 취소케 했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은 뒤에는 신이 되어 250년에 걸쳐 막부의 권위를 뒷받침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쇄국과 시마바라의 기독교도 반란](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064) - 기독교 금압과 쇄국(1587년 ~ 1641년) (일본사 다이제스트 100, 2011. 12. 30., 가람기획)